



어려움의 파도를 넘어 더 큰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어려움 앞에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지만
더욱 단결된 힘과 의지로 이겨내면
더 큰 희망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 흘리는 뜨거운 땀방울이
미래의 웃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다시 더 큰 힘을 내겠습니다.
시련을 희망으로 바꾼 민족, 코리아
시련을 희망으로 바꾼 기업, 현대



2nd WOMEN'S FILM FESTIVAL IN SEOUL

서울여성영화제

장소: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기간: 1999. 4. 16(금) ~ 23(금)

주최: (사)여성문화예술기획 후원: 문화관광부, 서울특별시

앞서서보기

여성의 어제, 내일을 만나다 (11편)

서울여성영화제에서만 볼 수 있는 최고의 걸작들이 모인 자리!
국내 미공개된 여성영화감독들의 작품을 앞서서 보는 행운을 누리세요.



보름달



단맛, 쓴맛



후미코를 찾아서



행복의 거리



내버려 뒀!



아이리스의 갈망



작은 보석들



나의 페미니즘



팝의 여전사



하이아트



슈가타운

- **보름달 ON A FULL MOON** 라 휘트모어, 호주, 1997, 35mm, 16분, 애니메이션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어머니를 추억하며 만든 한편의 시. 부드러운 연필스케치와 파스텔 색조의 풍부한 칼라가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아름다운 애니메이션.
- **단맛, 쓴맛 HONEY AND ASHES** 나디아 파레즈, 스위스/ 튀니지, 1996, 35mm, 80분, 극영화
영화전반에 흐르는 경쾌한 북아프리카의 음악처럼 우리의 세 여성 주인공들이 가부장제, 인습, 편견 등 여성을 억압하는 현실을 강하게 부수여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라.
- **후미코를 찾아서 RIPPLES OF CHANGE** 나나코 구리하라, 미국/ 일본, 1993, 16mm, 57분, 다큐멘터리
70년대 일본을 뜨겁게 달구었던 우먼리브(여성해방)운동 당시, 길바닥에 누워 경찰에 맞서던, 옷을 벗어던지던 서 항의하던 그녀들의 후일담.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살고 있다.
- **행복의 거리(幸福大街) RED SUIT (개막작)** 리 샤오훈, 중국, 1998, 35mm, 100분, 극영화
감동적인 중국판 IMF 가족 일대기. 격변하는 중국의 현대사 속에서 신세대에 밀려 파멸로 쫓겨나는 중국의 한 가정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이전 어제를 기릴 따스한 가족이 있다.
- **내버려 뒀! WHATEVER** 수잔 스루그, 미국, 1998, 35mm, 112분, 극영화
(이유없는 반항)의 전통 안에 놓여 있는 10대 영화. 어린이도 성인도 아닌 미묘한 시기에 방황하는 두 소녀의 이야기.
- **아이리스의 갈망 UNDER THE SKIN** 케린 애플리, 영국, 1997, 35mm, 85분, 극영화
여자에게 어머니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어머니의 죽음 이후 참내처럼 행동하는 아이리스의 방황과 갈등을 다룬 영화. 마치 다큐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새로운 영국영화의 힘을 느껴보시길.
- **작은 보석들 SMALL TREASURES** 세리 윌, 호주, 1995, 35mm, 14분, 애니메이션
세계 각국의 영화제에서 애니메이션, 단편영화 부문의 상을 휩쓴 작품. 감독의 사산경험이 바탕이 되어 일신에서 출산까지 여성이 느끼는 기쁨, 고통, 불안, 광기 등이 섬세하게 포착되어 있는 아름다운 영화.
- **나의 페미니즘 MY FEMINISM** 도미니크 카도나/ 오리 볼버트, 캐나다, 1997, 비디오, 55분, 다큐멘터리
페미니즘이 지금까지 이루어낸 것과 앞으로 이루어내야 할 것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는 다큐멘터리. 페미니즘의 주요 개념들과 그 내부의 차이 및 다양성을 꼼꼼히 탐사하는 훌륭한 여성학 개론이다.
- **팝의 여전사 THE RIGHTEOUS BABES** 프라타파 파마, 영국, 1998, 비디오, 50분, 다큐멘터리
사내드 오크너, 마론나, 에니 디프링크 등 세계 유명 여성 락, 팝가수들의 뮤직비디오와 공개생활을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미진. 그들이 현대여성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을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밝혀나간다.
- **하이아트 HIGH ART** 라사 출로덴코, 미국, 1998, 35mm, 101분, 극영화
저명한 사진작가였던 루시와 사진잡지 편집자로 있는 시드가 만나 겪게 되는 예술과 상업의 갈등, 정상과 알탈의 갈등 등 삶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하이아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흥미롭게 보시길.
- **슈가타운 SUGAR TOWN** 앨리스 앤더스/ 커트 보스, 미국, 1999, 35mm, 90분, 극영화
아시아 최초로 상영되는 신댄스에서 갓 나온 따끈따끈한 영화. LA연예계의 달콤한 허상을 신랄하게 비꼬는 재 있는 코미디. 로잔나 아퀘트, 존 테일러 출연.

여성환상도래(女性幻想到來) (7편)

여성이 꿈꾸는 판타지는 어떤 것일까?
여성과 판타지의 만남, 그 환상적 만남을 즐겨 보세요.



■ 셀리아 CELIA

앤 타너, 호주, 1988, 35mm, 103분, 극영화

아름 싹싹리 소녀는 어떤 환상을 꿈꾸까? 백마 타고 온 남자? 천만에! 숲 속의 괴물 호비아즈에 관한 환상을 갖고 있는 소녀의 현실은 그녀의 환상 만큼 결코 보잘것 없는 것이 아니다. 때는 생애계를 위협할 정도로 증식한 토끼를 없애기 위해 전국적인 '토끼 제거령'이 발효된 1950년대 호주. 환상과 현실을 오가는 '이상한 나라의 셀리아' 이야기.



■ 프리크 올란도 FREAK ORLANDO

올리케 오틀거, 독일, 1981, 35mm, 126분, 극영화

새로운 영화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필수. 올리케 오틀거는 환상적인 양식의 여성주의 영화를 만들어온 대표적인 감독. 토드 브라우닝의 공포영화 <프릭>과 버지니아 울프의 <올란도>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작품으로 환상적인 코드와 색채가 날발하는 판타스틱 로드무비.



■ 조디 포스터 이야기 JODIE: AN ICON

프라티바 파아, 영국, 1996, 16mm, 24분, 다큐멘터리

사생활만큼 철저한 베일에 쌓여있는 조디 포스터. 과연 그녀의 이야기 아내는 누구이고 그녀는 정말 소문대로 레즈비언일까? 궁금하다면 이 다큐를 꼭 보시길. 그녀의 어린시절 출연작부터 최신작을 차근차근 밟아가며 진실을 밝혀가는 조디 포스터 심층 보고서.



■ 바비 인형의 제국 I. DOLL: THE UNAUTHORIZED BIOGRAPHY OF AMERICA'S 11 1/2" SWEETHEART

블라 아셀라니즈, 미국, 1996, 비디오, 57분, 다큐멘터리

그렇게 갖고 싶었던 마네킹을 손에 쥐었을때의 기쁨도 잠시, 곧 당신은 그 예쁜 인형을 팔거나 다리 하나를 잃어버린 대머리 괴물로 만들어진 기억이 있을 것이다. 수십년동안 전세계 여자들을 사로잡아온 바비인형의 일대기를 주목하라. 이는 곧 미국의 현대사이며 또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해 온 역사이기도 하다. 수백가지 바비인형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진귀한 다큐멘터리.



■ 드림 걸즈 DREAM GIRLS

킵 콘지노토 / 제이노 윌리엄즈, 영국, 1994, 16mm, 50분, 다큐멘터리

여성들만이 이루어진 일본의 유명 학구단 '타카라주키'에 관한 흥미진진한 다큐. 키메라는 멋진 남자 역할 여성스타의 공연장면과 '언니부대' 군대와 닮있는 기숙사생활 등 화려한 타카라주키 인파의 모습을 홀로 서서 일본 여성들의 판타지를 구성하는 모순된 요소들에 질문을 던진다.



■ 밤이 기울면 WHEN NIGHT IS FALLING

페트리샤 로제마, 캐나다, 1995, 35mm, 96분, 극영화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들을 보고 사랑에 빠지지 않을 여성(!)이 있을까? 인종과 사회적 배경이 다른 두 여성이 만나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다. 섬세한 감성요소와 진기한 서커스장면(특히 다리미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여성이 사랑을 나누는 관능적이고 황홀한 장면은 이 영화의 일관. 엔드 크레딧도 놓치지 말 것!



■ 아름다운 육체 THE BODY BEAUTIFUL

엔고지 오누라, 영국, 16mm, 1991, 23분, 극영화

여성에게, 어머니에게 육체는 무엇인가? 유행잡재술로 한 쪽 가슴을 잃은 동등한 어머니의 늙은 육체와 건강한 딸의 젊은 육체가 그들에게 각각 동질의 의미를 갖을 수 있을까? 그들의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통해서 육체에 관해 살펴보는 탐미적이고 도발적인 보고서.

견주어보기

단편영화 및 비디오 경선 (20편, 가나다순)

미래의 여성감독의 신실한 바보 이곳!
예선작품 68편과 특별한 감동으로 온선예 골라본 우수작 20편을 감상할
철호의 기회입니다. 어느 작품이 상을 받을까? 직접 펼쳐 보세요.
그리고 관객상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 《고추알리기》 장희선, 16mm, 컬러, 극영화+다큐멘터리, 53분
- 《노이로제 가족》 석유민, 16mm, 극영화, 흑백, 7분, 1997
- 《도형일기》 정재춘, 16mm, 극영화, 컬러, 30분, 1997
- 《로자이야기》 홍지영, 16mm, 극영화, 컬러, 24분, 1999
- 《만병위》 고수경, 비디오, 극영화, 컬러, 19분
- 《버튼 뒤》 전창희, 16mm, 극영화, 컬러, 15분, 1997
- 《반집》 김진아, 비디오, 실험영화, 컬러, 24분
- 《샌드위치》 임두경, 16mm, 극영화, 흑백, 16분, 1998
- 《생채기》 정민아, 16mm, 극영화, 컬러, 14분, 1998
- 《섬》 김유진, 16mm, 극영화, 흑백, 16분 30초, 1998

견주어보기



- 《아...》 김향숙, 16mm, 극영화, 컬러, 14분, 1998
- 《아직도 제자리에 있는 검정》 김연희, 16mm, 극영화, 컬러, 10분
- 《오늘이 우리를 기억할까》 이우숙, 16mm, 극영화, 컬러, 23분
- 《응시》 노대경, 16mm, 극영화, 컬러, 15분, 1998
- 《있/다/없/다》 이경희, 비디오, 다큐멘터리, 컬러, 19분
- 《종이나비》 김태욱, 비디오, 극영화, 흑백, 7분, 1998
- 《좋은 날》 김희정, 비디오, 다큐멘터리, 컬러, 10분, 1999
- 《침안의 벽》 유종미, 16mm, 극영화, 컬러, 10분, 1998
- 《1997 여름》 송윤재, 16mm, 다큐형식 극영화, 컬러, 21분 36초, 1997
- 《코튼》 박정선, 16mm, 극영화, 흑백, 8분, 1998

더불어보기

여성영상공동체 (5편)

여성운동의 현장에서 공동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국내 작품들이 한자리에!
관객과의 대화시간도 마련되오니 친구, 애인과 더불어 보세요.

■ 커밍아웃

이화여대 의류직물학과, 20분, 비디오, 1998

여성들의 색수업리터의 차이를 통해 달한 범주가 아닌 열린 범주로서의 여성을 도발적으로 '아웃팅outing' 하는 영화.

■ 여자가 되는 것은 사자와 사는 것인가

여성민주회 영상매체위원회, 10분, 비디오, 1998

결혼한 30대 맞벌이 여성이 부딪히는 문제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담은 영화. 사자(가부장제)와 여성 간의 수직적인 먹이사슬 관계와 그것이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압축적으로 폭로한다.

■ 모녀참새의 하루

김동령 외 이화여대 영화과 누에, 15분, 비디오

가부장제 사회속에서 엄마와 딸은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모반을 꿈꾸는 공범자이다. 그들은 한국의 가부장들이 여성들에게 결코 허락하지 않는 담배를 통해 하나가 된다.

■ 여성장애인 김진옥씨의 결혼이야기

김진열, 41분, 비디오

여성 장애인들은 2백 5십만명. 김진옥씨는 뇌성마비 중증장애자이지만 자긍심과 자기애를 기반으로 인생의 모험을 마다하지 않는다.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추구하는 영화.

■ 그녀의 하루

손장수 외 대천 여민회, 15분, 비디오

30대 고졸 미혼 실업 여성의 인생은 그야말로 살전 야투이다. 고용시장으로부터, 가족중심주의 사고로부터, 여성에 대한 장영화된 가치로부터 그들은 아웃되어 있다.

서울여성영화제



관람은 대학, 대학, 관문, 유언장, 포용력, W오명의 신은 WOMEN의 첫 아내와 딸들이 흐름, 여성의 가슴을 실종한다. 보라는 여성 해방을, 김철과 은석은 필름을 의미한다.

영화도 보고 공부도 하고!

서울여성영화제에서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리보세요.

뒤집어보기 포럼

환상, 여성의 욕망과 쾌락의 새로운 정치학

일시: 1999. 4. 20(화) 오후 7시

장소: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2층 카페 라르고

1주제

판타스틱 양식의 역사와 형식들

미술이나 사진같은 시각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논의되어온 환상이라는 정점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영화에서 여성의 환상의 지평을 넓혀본다.

2주제

여성의 환상과 여성주의 문화정치학

여성의 환상이 어떻게 남성의 환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의미작용하는지, 그리고 여성들 내의 차이를 얼마나 생산적으로 가시화하는지를 논의한다.

되돌아보기 포럼

한국 멜로 영화에서 그려지는 근대화 경험과 여성의 관계

일시: 1999. 4. 21(수) 오후 7시

장소: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2층 카페 라르고

1주제

멜로영화와 모더니티의 경험: 대중문화, 도시공간 그리고 여성

여성주체가 대중문화를 수용하고 향유한 방식과 도시공간을 전유하고 인식하는 방식을 탐구함으로써 멜로 영화 내의 여성적 세계와 여성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평가한다.

2주제

동요하는 여성의 성, 성애화되는 여성육체

특수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성별 이데올로기가 동요되거나 공적/사적 영역이 재구조화되는 과정이 여성의 성과 육체를 어떻게 정의하거나 재현하는지를 논의한다.

1부 근대화와 가족의 해체 (6편)

주소: 한국 영상자료원/입장료 무료

4월 7일

2시

■ 단발머리

김수용, 흑백, 시네마스코프, 95분, 1967

출연: 김혜성, 신영균, 남정임, 이은재, 김난영

남편의 세월에 저항하여 스스로 가위를 들고 단발머리로 다음어가는 신여성의 행위는 멜로드라마의 관례에 도전하는 여성의 자아 찾기이다.

4시

■ 귀로

이인화, 흑백, 시네마스코프, 90분, 1967

출연: 문성숙, 김경진, 전계현

남편을 대신해 '신문사'로 광고를 배달하는 여성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자유에 관해 질문한다. 멜로드라마와 '보아나'들이 만난 결과.

4월 8일

2시

■ 자매의 화원

신성숙, 흑백, 110분, 1959

출연: 최은희, 김혜성, 김승호, 남궁원

자아를 포기하거나 희생하지 않고도 사랑과 믿음, 성취하는 여성을 소개하는 50년대 서울의 풍경속에 아름답게 그려진 작품.

4시

■ 애와 사

최승희, 컬러, 시네마스코프, 110분, 1970

출연: 문희, 신정임, 최정호, 황광순

부부사이에서 벌어지는 성취 확대의 강도와 성취감이 단순한 일탈적 쾌락을 넘어서 정상적인 가족제도와 남성성에 내재한 폭력성을 고집어내는 영화.

4월 9일

2시

■ (숙)박 숙의 여자

박종호, 컬러, 시네마스코프, 100분, 1970

출연: 문희, 남궁원, 신영균, 오수미

다시 생가 발원한 연애와 자유의 숨결을 꿈꾸게 하는 비자, 하지만 고요한 스를 주면서 통행권을 잃는 그녀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공간은 없다.

4시

■ 성녀와 마녀

나한문, 컬러, 시네마스코프, 97분, 1969

출연: 남정임, 고은아, 신영균, 이은재

엇갈린 사랑과 결혼에 얽혀있는 인간 군상을 다룬 작품. 두 여인의 역할이 뒤바뀌면서 영화는 여성에게 돌아온 고요한밤에 도전한다.

2부 여성, 대중문화, 욕망의 사회학 (5편)

영화제 기간중 동송홀 상영

비디오로는 볼 수 없는 한국 영화를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여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근대화의 바람이 몰고온 갈등의 양상을 재현하는 멜로드라마를 탐구해 보세요.



■ 자유부인

한형모, 흑백, 125분, 1956

출연: 김경림, 박암, 양미희, 김동원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근대적 여성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던 최고의 흥행작. 교수의 부인 오신영이 문지방을 넘어 사회로 진출하면서 생기는 여성의 지위에 대한 갈등을 그리고 있다.



■ 학사기생

김수용, 흑백, 시네마스코프, 101분, 1966

출연: 남정임, 신정임, 최남현, 주선대

가부장제의 주문에 의해 정체성의 분열을 겪는 여성의 비극적인 삶이 풍자적인 시추에이션 코미디의 형식과 결합한 작품. 미리와 참회라는 두 개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성의 이중적인 삶에 관한 영화.



■ 김약국집 딸들

유현목, 흑백, 시네마스코프, 97분, 1963

출연: 황정순, 엄앵란, 최지희

동명의 박경리 원작소설을 영화로 옮긴 작품.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김약국집 세 딸을 통해 전통과 근대, 제도적 금기와 개인의 욕망이 부딪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 미워도 다시 한번

정소영, 93분, 1968

출연: 신영균, 문희, 전계현, 김장훈

말이 필요없는 60년대 최고의 히트작. 멜로가 유행한 90년대를 돌아보며 '오늘도 다시 한번' 볼만한 영화.



■ 남편

조봉진, 80분, 1969

출연: 김진균, 고은아, 강부자, 송해

60년대 대중영화를 풍미하던 멜로드라마가 코미디를 만나 아슬아슬한 남성의 성적 환타지를 합성한다. 70년대 한국사회의 국가주도적 가족정책을 예고하는 작품.

B&F
Be & Forever

딱 15초면 지친 모공이 상심! 생생

시원한 모공 마사지

It's tightening



비엔에프 포어 타이팅닝 마사지

여유 속의 시원한 물결. 비엔에프 포어 타이팅닝 마사지는 피부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높여 주어진 모공을 일시적으로 수축시켜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 줍니다. 또한 피부의 수분을 높여 주어진 모공을 일시적으로 수축시켜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 줍니다.

비엔에프 포어 타이팅닝 마사지는 피부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높여 주어진 모공을 일시적으로 수축시켜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 줍니다.

비엔에프 포어 타이팅닝 마사지는 피부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높여 주어진 모공을 일시적으로 수축시켜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 줍니다.

한국화장품

http://www.cali.co.kr
1-800-888-2222

내 피부가 편안한 물을 만났다
문지르면 물이 된다 - 칼리 워터드롭

습한 피부는 물과 만나면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한다. 물은 피부의 수분을 높여 주어진 모공을 일시적으로 수축시켜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 줍니다. 또한 피부의 수분을 높여 주어진 모공을 일시적으로 수축시켜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 줍니다.



아름다운 개인주의 - 칼리

cali

비엔에프 포어 타이팅닝 마사지는 피부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높여 주어진 모공을 일시적으로 수축시켜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 줍니다.

“삼성생명이니까 한번 더 안심!”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국내 최초로 “Y2K 해결 인증” 획득!

삼성생명은 「한국Y2K인증센터」로부터
컴퓨터 2000년 표기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평가받아 국내 최초로 **종합인증1호**를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사랑 이웃사랑

SAMSUNG

삼성생명

Oxy

청결세대 - 옥시

청결한 가정과 맑고 깨끗한 환경 - 옥시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청결한 집, 청결한 가족, 청결한 우리강산을 가꾸어가는
사람들 - 바로 옥시가 꿈꾸는 청결세대입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늘 주부님들의 사랑을 받아온 옥시-
제품 하나하나마다 환경과 생활을 생각하는 기업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산소계 표백제 옥시스크린 생분해성, 저독성 등을 인정받아 미국 환경단체
그린빌의 환경마크를 획득한 것도 이런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추구하는 제품으로 청결세대를 실현하는 옥시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땅의 여성들과 함께
샘표도 새로운 천년을 준비합니다



지난 50여년 이땅의 여성들과 함께 해온 샘표 새 천년을 맞아 샘표가 더욱 큰 꿈을 키웁니다.

우리의 맛을 잊지않은 지킴이로서, 새로운 맛을 발전시키는 창조자로서,

합리적인 식생활을 제인하는 선도자로서, 날로 젊어지는 샘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엔 여성의 힘이 쑥쑥 -

새로운 천년엔 샘표의 미래가 활짝 -

유동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수출 1위! 생산 세계 1위!

게맛살

대림수산은 맛살 수출 5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맛살의 세계 최대 생산업체이기도 합니다.
싱싱하고 깨끗한 대림鮮 게맛살, 세계인과 함께 즐겨요!



대림수산주식회사
고객상담실: 080-900-6133